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25. 10. 20.~2025. 10. 26.

출장지: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중국(홍콩)

출장자: 배유진, 백윤지, 이수암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중국(홍콩)
2. 출장기간: 2025. 10. 20. ~ 2025. 10. 26.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연구위원	배유진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백윤지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암	

4. 출장목적

- 공항 주변을 첨단산업 및 물류단지로 개발한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 도출
 - 가덕도신공항 중심 종합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2도시에서 국제공항 주변을 첨단산업 및 물류단지로 개발하여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
- 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 자유무역지역, 특구전략 등 선도 지역을 방문하여 벤치마킹
 -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복합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산업을 육성·유치하고 있는 선도 지역을 방문하여 주요 전략을 조사
- 공항과 항만운영기관 간 거버넌스 구조, 내부 수익용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만, 철도, 도로 등 통합물류체계를 구축 및 글로벌 물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항만운영기관 간 거버넌스 구조, 내부 수익용지의 활용방안 등 전략을 조사

II. 출장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0/20(월)	인천	두바이	(13:23) 인천 출발 (18:55) 두바이 도착 (10시간 30분 비행)	
10/21(화)		두바이	(10:00-14:00) - 알막툼 국제공항 확장 현장 및 두바이사우스(Dubai South), 자유무역지대(FTZ), 에어로트로폴리스(Aerotropolis) 등 주변지역 주요 인프라 개발 현장 조사	
			(15:00-18:00) University of Dubai Business School 방문 및 인터뷰 - 알막툼 공항 주변 도시 및 인프라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Dr. Mahmood Abdulsattar Ahmad Assistant Professor
10/22(수)		두바이	(10:00-13:00) TECOM Industrial City 방문 및 인터뷰 - 알막툼 국제공항-항만-철도 연계 물류산업단지 개발 현황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 등	Abdulla Alraeesi Assistant Manager
			(14:00-17:00) KOTRA 두바이무역관 방문 및 인터뷰 - 알막툼 국제공항 확장 현황과 자유무역지대(FTZ) 등 해외 투자유치 전략	김학빈 과장 인헤린 팀장 박미진 과장
10/23(목)	두바이	홍콩	(10:00) 두바이 출발 (21:55) 홍콩 도착 (7시간55분 비행)	
10/24(금)		홍콩	(10:30-14:30) 물류기업 밀집지역(쿠이충, Kwai Chung) 현장답사 - 글로벌 물류기업 본사 및 컨테이너 터미널·물류창고 밀집지역 현장조사	
			(15:00-18:00) KLN Logistics Group Limited 방문 및 인터뷰 - 최신 물류저장·운송 전략 및 항공물류 운영체계 이해 물류단지 개발, 공항 배후단지 조성 및 지역 파급효과 등	Jane Toktarova Assistant Manager Jisoo Jung Assistant Manager Jiyeon Seo Manager
10/25(토)		홍콩	(10:00-12:00) 홍콩중문대학 항공정책 및 연구센터 방문 및 인터뷰 - 공항의 수익구조, 여유부지 활용계획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주변공항(바오안, 마카오)과 차별화 방안 등	Andrew Chi-lok Yuen 항공정책연구센터 전문이사
			(14:00-18:00) 통청신도시 거점 상업·교통시설 현장조사	
10/26(일)	홍콩	인천	(12:35) 홍콩출발 (17:05) 인천 도착 (3시간 30분 비행)	

III. 수행사항

1.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가. 두바이 대학교 두바이 비즈니스 스쿨 방문

1) 회의 개요

- 일시: 2025. 10. 21(화) 15:00
- 장소: Academic City, Emirates Road - Exit 49 - Dubai
- 참석자:
 - (국토연구원) 배유진 연구위원, 백윤지 부연구위원, 이수암 전문연구위원
 - (두바이 비즈니스 스쿨) Dr. Mahmood Abdulsattar Ahmad Assistant Professor
 - (칼리파 대학) 조평윤 통역 및 코디네이터



▲ 회의진행 사진



▲ 기관방문 기념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

2) 회의 내용

- 알막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및 개발 현황
 - 알막툼 신공항은 기존 두바이 국제공항(DXB)은 현재 연간 9,200만 명을 처리하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 허브이지만, 도시와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물리적 확장 한계에 도달
 -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른 기존 두바이 국제공항(DXB, 60년대 건설)을 대체하고, 두바이를 향후 50년간 세계 항공 산업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살만 국제공항(King Salman International Airport) 등 중동 라이벌들의 공항 확장 경쟁 속에서, 알막툼 프로젝트는 글로벌 허브 경쟁에서 두바이가 선두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 두바이의 새로운 항공 허브로 기획된 알막툼 국제공항(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 Dubai World Central)은 현재 활발한 확장 및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궁극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이 되는 것이 목표
- 2007년에 착공했으나 금융 위기로 지연되었다가 2024년 4월, 두바이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약 350억 달러(약 48조 원) 규모의 대규모 확장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신규 여객 터미널 건설을 위한 공사가 시작
- 1단계 완공 목표는 2032년(연간 1억 5천만 명 수용 목표)으로 현재 두바이 국제공항(DXB)의 모든 운영을 10년 이내(2032년경) 알막툼 국제공항으로 이전할 계획이고 국적 선사인 에미레이트항공 역시 2034년까지 이전할 예정
- 알막툼 신공항은 두바이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제벨 알리 항구(Jebel Ali Port) 근처에 위치하며, 70km²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



▲ 알막툼 공항 및 주변지역 조감도



▲ 알막툼 공항 위치 및 주변지역 개발현황

출처: <https://www.architecturaldigest.in>

○ 알막툼 신공항 인프라 확장 및 운영 계획

- 현재 제2활주로 및 여객터미널 건설 진행률 약 35%로 완공 시 연간 최대 2억 6천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현재 두바이 국제공항(DXB)의 5배 규모로 총 5개의 평행 활주로나 400개 이상의 항공기 게이트를 갖추게 될 예정
- 세계적인 건축 회사 쿠프 힘멜브라우(Coop Himmelb(l)au)가 설계한 터미널은 정원, 폭포, 자연 환기가 어우러진 "도시 속의 도시" 같은 공간을 구현할 예정으로 신규 터미널은 전통적인 베두인 텐트를 연상시키는 곡선형, 흰색 외관 디자인 특징
- 신규 여객 터미널 내에 대규모 지하철도망 구축사업이 추진 중으로 공항 부지가 방대하여 환승객의 이동 거리(15~20분 소요 예상)와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좌석을 갖춘 내부 지하철 시스템이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로 간주

- 생체인식 기반의 자동화된 체크인 및 탑승, AI 기반의 보안 시스템 및 자동 수하물 분류 시스템, 무인 셔틀·로봇 안내 서비스 등 첨단 스마트 기술도 도입할 예정
- 알막툼 국제공항은 승객 여객 처리 터미널이 하나의 메인 터미널 구조체로 운영될 예정으로 터미널 내 동선이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동이 수월
- 현재는 단일 여객터미널 구조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대규모 허브 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일반 승객은 터미널 내에서 이동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
- 현재 걸프만지역, 러시아 등 일부 여객 항공편만 운영 중으로 정규 직항 노선은 약 39개 도시, 운항 항공사 약 20개 수준으로 확인



▲ 알막툼 공항 외부(현재모습)



▲ 알막툼 공항 내부(현재모습)



▲ 알막툼 공항 외부(미래모습)



▲ 알막툼 공항 내부(미래모습)

출처: 연구진 촬영 / <https://www.architecturaldigest.in>

- 두바이 사우스(Dubai South) 지역을 항공·물류·산업·주거 복합도시로 개발 중
 - 두바이(UAE Dubai)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마스터플랜 도시개발 사업으로, 면적 약 145 km²에 달하는 규모로 원래 “Dubai World Central”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2015년경 “Dubai South”로 브랜드명이 변경
 - 여러 기능별 구역(districts)으로 나뉘어져 개발 중으로 Aviation District(알막툼 신공항 및 항공 산업 클러스터), Logistics District(자유무역지대, 창고, 통관센터), Residential District(주거·교육), Commercial·Business Park(상업·비즈니스 복합지구), Exhibition·Event District(엑스포 2020 부지를 재개발한 지속가능 도시)의 5개 핵심구역 구성

구역	주요기능
Aviation District (항공지구)	Al Maktoum 국제공항이 있는 구역이며, 항공·물류 허브의 핵심
Logistics District (물류지구)	항공·해상·육상 물류 연계 기반을 만들어 물류 비즈니스를 지원
Residential City (주거지구)	주거용 아파트, 타운하우스, 빌라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가족 거주 또는 장기 거주 가능성 고려
Commercial-Business Park (상업·비즈니스 지구)	기업 오피스, 비즈니스센터, 자유무역지대(free-zone) 기능 등이 마련되어 기업 유치를 목적
Exhibition-Event District	Expo 2020 Dubai 부지 등이 이 지역과 인접하며 이벤트·전시 기능

출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 공항 주변에 100만 명을 위한 주택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의 제벨 알리 항구 및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에 따라 알막툼 공항 주변 지역은 물류 및 항공 운송 부문의 세계 선도 기업들이 모이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어로트로폴리스(Aerotropolis)로 개발
- 두바이 중심부 및 인근 지역과의 접근이 주요 고속도로(E311 Sheikh Mohammed Bin Zayed Road, E611 Emirates Road 등)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공항을 중심으로 핵심 연결 점이 될 예정으로 물류 및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항공·해상 복합물류 시스템(Jebel Ali Port - 알막툼 공항 - Sheikh Mohammed Bin Zayed Road 삼각축 형성) 구축 중
- 주거 및 상업지구 개발은 Expo City Dubai 내 친환경 스마트타운 건설 중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2028년 사이 신규 5성급 호텔 6개 건설 예정으로 외국인 장기임대 및 투자유치 제도 확대
- 또한 학교(국제학교 포함), 병원·클리닉, 상업시설, 공원·녹지 등이 개발 중이며, ‘주거+업무+생활’이 한데 어우러진 형태로 설계
- 현재 약 2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을 수용할 계획으로 다양한 개발업체들이 아파트, 타운하우스, 빌라 등 주거 단지를 건설 중이며,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
- 두바이 사우스는 세계 무역, 항공 및 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벨 알리 항구와 전용 물류 회랑으로 직접 연결되어 뛰어난 연결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두바이 사우스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설계되었으며, 엑스포 2020 개최 부지였던 엑스포 시티 두바이(Expo City Dubai)도 이 지역 내에 위치
- 두바이 사우스는 두바이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두바이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두바이 사우스 물류지구(1)



▲ 두바이 사우스 물류지구(2)



▲ 두바이 사우스 주거지구



▲ 두바이 사우스 상업·비즈니스 지구

DUBAI SOUTH A MASTER PLANNED URBAN DESTINATION



▲ 두바이 사우스 주요 개발지구 현황

출처: 연구진 촬영 / <https://www.dubaisouth.ae/en>

나. TECOM Group Industrial City 방문

1) 회의 개요

- 일시: 2025. 10. 22. (수) 10:00
- 장소: Dubai Industrial City Head Office Building 1, Dubai Industrial City
- 참석자:
 - (국토연구원) 배유진 연구위원, 백윤지 부연구위원, 이수암 전문연구원
 - (Industrial City) Abdulla Alraeesi Assistant Manager
 - (칼리파 대학) 조평윤 통역 및 코디네이터



▲ 회의진행 사진



▲ 기관방문 기념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

2) 회의 내용

- TECOM 그룹은 Dubai Development Authority(DDA: 두바이 개발청) 관할하에 운영되는 여러 자유무역지대(Free Zone) 및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를 개발·운영하는 기업
 - 두바이의 경제 성장을 위해 분야별 특화된 비즈니스 지구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알막툼 신공항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두바이 사우스 지역에서 특히 Dubai Industrial City(DIC)의 물류 및 제조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장함으로써, 신공항의 에어로트로폴리스(Aerotropolis)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두바이 인터넷 시티(DIC), 두바이 미디어 시티(DMC), 두바이 디자인 디스트릭트(d3), 두바이 산업도시(DIC) 등 11개의 성공적인 특화 비즈니스 지구를 개발하여 두바이를 글로벌 비즈니스 및 인재 허브로 만드는 데 기여
 - Dubai Industrial City(DIC)는 두바이의 “Industrial Strategy 2030”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산업 허브로, 지속가능한 제조·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해 UAE 산업 다변화 목표를 실현



▲ TECOM Group Industrial City 사업설명

출처: 연구진 촬영

- 알막툼 신공항과 연계한 Dubai Industrial City(DIC) 개발
 - 아랍에미리트(UAE)와 두바이는 전통적인 석유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무역, 금융, 관광,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세우고 'Operation 300bn' 이니셔티브(2031년까지 산업 부문 GDP 기여도를 3,000억 AED로 증대) 및 'Make it in the Emirates' 캠페인 실시
 - 이와 같은 국가 전략에 따라, 제조업을 강화하고 현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전용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였고 이에 TECOM 그룹은 알막툼 공항(DWC)과 인접한 지역에 제조 및 물류 허브로 강화하기 위해 1,390만 평방피트부지에 달하는 산업 임대용 토지를 추가 하는 등 집중 투자하여 Dubai Industrial City(DIC)의 개발을 주도
 - Dubai Industrial City(DIC)는 알막툼 국제공항(DWC)과 두바이 사우스 프로젝트의 물류 허브를 지원하는 핵심 산업단지로서, 이와 같은 두바이의 장기적인 경제 전략에 따라 2004년에 설립
 - 아랍에미리트(UAE) 대표 산업자유무역지대(Free Zone)로, 알막툼 국제공항(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과 제벨알리 항만(Jebel Ali Port)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
 - 2025년 8월에는 16억 AED(약 5.9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Dubai Industrial City(DIC)에 3,300만 평방피트의 토지 필지 138개를 추가로 인수하는 계획을 승인하여 산업 부문에 대한 그룹의 총 투자를 확대
 - 총 면적은 약 5,200만㎡(5억 6천만 평방피트)에 달하며, 특정 산업 분야에 맞춰 설계된 6개의 구역(zones)으로 나뉘어짐
 - 주요 산업 분야는 식음료, 운송 장비 및 부품, 기계 및 기계 장비, 화학 제품, 광물 제품, 기본 금속, 물류 및 경공업 등 다양한 부문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유치
 - 산업용 토지(장기 임대 가능), 물류 및 경공업용 창고, 사무 공간, 쇼룸, 근로자 숙소, 개방형 야적장 등 다양한 시설과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

-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 및 용수 공급, 효율적인 통신 시스템, 포괄적인 배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
- 제조업, 물류, 창고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인프라와 통합된 솔루션을 한 곳에서 제공하여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
- 각 구역은 전용 전력, 수도, 폐기물처리, 통관시설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으며, Dubai South 물류지구 및 Jebel Ali Port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망을 갖춘

구역	주요기능
Food & Beverage Zone	식품가공 · 냉장물류 · HACCP 인증 시설
Transport Equipment & Parts	차량 부품, 조립라인, 중장비 제조
Minerals & Metal Zone	금속 · 강판 가공, 자재창고
Chemicals Zone	비위험 화학제품, 포장 및 물류
Machinery & Equipment	산업기계 · 설비 제조 및 정비
Base Metals Zone	건축자재 · 주조 · 가공 관련 산업

출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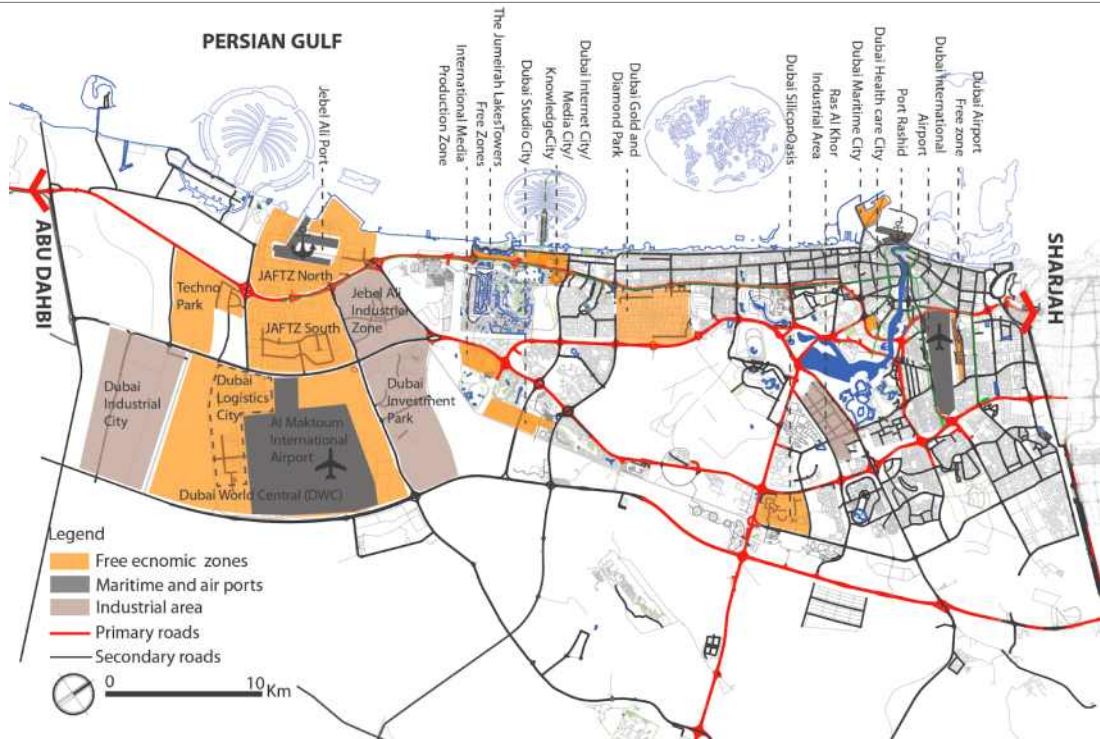
- 종합 인프라와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
 - Dubai South Authority & TECOM Group과 공동으로 행정지원을 하여 제조업 및 물류 기업이 지역 및 국제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
 - 외국기업은 100% 외국인 단독 소유가 가능하며, 법인 설립 시 현지 파트너나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고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설립되는 법인은 법인세 0%, 소득세 및 배당세 면제, 그리고 수입·수출 관세의 완전 면제 혜택
 - 자유무역지대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되며, 사업 이익을 본국으로 100% 송금할 수 있는 완전한 외환 자유가 보장되고 이러한 세제·금융 정책은 최대 50년간 보장되며, 동일 조건으로 갱신이 가능
 -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토지 및 시설의 장기 안정적 임대 제도로 기업은 최대 50년까지 장기 임대가 가능하며, 토지 리스(Leasehold), 창고·공장 임대, 또는 TECOM Group이 직접 설계·시공을 지원하는 Built-to-Suit(맞춤형 공장 개발) 형태 중에서 선택 가능
 - 임대료는 용도에 따라 연평균 4~7 AED/ft² 수준이며, 신규 입주기업에는 초기 3년간 임대료 30%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
 - 또한 Dubai South Authority와 협력하여 기업 등록, 비자 발급, 인허가, 유틸리티 연결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One-Stop Service)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인 설립에는 통상 7~10 영업일이 소요되며, 투자자 비자·근로비자·가족비자 발급도 전자시스템(E-channel)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 알막툼 공항과 제벨알리 항만 간의 물류 이동이 원활하고 자체 통관시설과 24시간 세관 운영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Dubai Trade Portal을 통한 디지털 통관 및 물류 추적 시스템도 지원
- 이로 인해 중동 및 아프리카(MENA) 지역으로의 수출입 거점으로서 세계 주요 제조기업들이 Dubai Industrial City(DIC)를 선호

혜택	주요내용
법인세(Corporate Tax)	0% (최대 50년간 면세, 연장 가능)
소득세·배당세	없음
수입·수출 관세(Customs Duty)	자유무역지대 간 거래 시 100% 면세
부가세(VAT)	FZ 내 기업 간 거래 시 0% 또는 면제 적용
이익 송금(Profit Repatriation)	100% 본국 송금 가능
임대기간	최대 50년 장기임대 가능, 만료 시 갱신 용이
임대형태	토지 리스, 창고·공장 임대, 맞춤형 공장(Built-to-Suit)
임대혜택	신규 입주 시 임대료 최대 30% 감면(3년) 프로모션

출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 현재 약 800여 개 글로벌·현지 기업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한국·일본계 부품·자동차기업의 입주 문의 증가 증으로 스마트팩토리·에너지 절감형 제조 솔루션 분야 수요가 확대
- Dubai Industrial City는 알막툼 국제공항, 제벨 알리 항구(Jebel Ali Port), 에티하드 레일(Etihad Rail) 화물 터미널과 인접한 삼각 물류 허브에 위치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제벨알리 항구(Jebel Ali Port), 알막툼 국제공항(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 그리고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로드(Sheikh Mohammed Bin Zayed Road) 등 주요 교통 허브 및 간선 도로와 인접해 있어 육상, 해상, 항공 운송에 모두 유리
- 이 세 가지 운송 수단에 인접하여, 원자재 및 완제품의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환적이 가능한 세계적인 공급망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발하여 중동,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을 연결하는 두바이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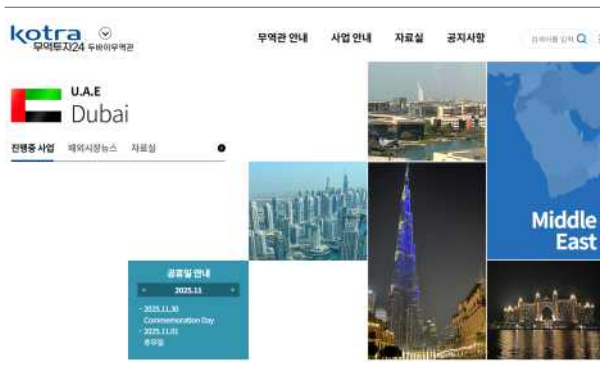
▲ 알막툼 공항 주변 물류연계(항만+철도+도로) 현황

출처: <https://www.portcityfutures.nl/>

다. KOTRA 두바이 무역관 방문

1) 회의 개요

- 일시: 2025. 10. 22. (수) 14:00
- 장소: Korea Trade Centre, No.202, Level 102, Arenco Tower, Media City, Dubai
- 참석자:
 - (국토연구원) 배유진 연구위원, 백윤지 부연구위원, 이수암 전문연구원
 - (KOTRA Dubai 무역관) 김학빈 과장, 인혜린 팀장, 박미진 과장



▲ KOTRA 두바이무역관 홈페이지



▲ 기관방문 기념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

2) 회의 내용

- 두바이 무역관은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전초기지로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수행
 - 두바이 남부 지역(Dubai South, 알막툼 공항 주변)은 물류와 항공, e-커머스, 첨단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코트라는 한국 기업의 자유무역지대(FZ) 투자 및 입주 절차를 지원하고, 물류센터와 첨단 제조업 진출 전략을 안내
 - Jebel Ali 항만 인근 지역은 해운과 물류 중심지로, 코트라는 항만 연계 수출입 기업에 현지 파트너 발굴과 시장 조사, 유통망 최적화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이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
 - Dubai Industrial City(DIC)는 자동차, 기계, 금속, 화학 등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코트라는 현지 합작법인(JV) 및 투자 프로젝트 발굴, 산업단지 내 인프라 지원, 투자 인센티브 안내
 - 두바이 의료·헬스케어 허브(Dubai Healthcare City)에서는 의료, 바이오, 제약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에 현지 병원 및 유통사 연결, 규제 대응 컨설팅, 바이오·의료 전시회 참여 지원을 제공

○ 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 및 주변지역 개발 동향

- 알막툼 공항 확장 사업은중 대형 사업으로 두바이 당국은 이 프로젝트에 약 1,280억 디르함 (미화 약 35 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승인 이에 인프라 측면에서 항공·해상·육상 물류를 잇는 거대한 허브화가 진행 중이며, 도로·철도(향후 메트로 및 '에티하드 레일'(Etihad Rail) 연계) 등의 교통망 연결이 강화될 전망
- 두바이가 알막툼 국제공항 확장을 포함한 최대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를 재개하는 것은 에미리트 경제, 특히 부동산 부문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두바이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자와 최종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바이는 관광, 비즈니스, 혁신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입지를 지킴
- 특히 두바이 남부를 향한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두바이 남부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생활 방식에 맞는 주택과 아파트를 다양하게 공급하여 비즈니스 및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는 자유 무역지대도 조성
-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측면에서 Dubai South 지역은 현재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예컨대 2025년 상반기 5개월 동안 거래금액이 150억 디르함을 넘었다는 보고가 있고 가격은 여전히 두바이의 중심지(예: 다운타운, 비즈니스베이 등) 대비 저렴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투자 및 수요 유입이 증가

○ 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 개발 효과

- 두바이를 글로벌 항공화물 중심지로 육성하고 아프리카·유럽·아시아 연결 허브로 물류·운송 산업 강화되면서 전통의 석유·가스 산업 의존도가 완화되고 항공·물류·첨단 제조·e커머스 산업 유치 등 산업이 다변화 예상
- 공항·물류단지·산업단지 관련 직·간접 고용 확대와 자유무역지대(FZ) 혜택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 그리고 장기 임대 및 세제 혜택으로 기업 설립 비용 절감 등 투자 유치 활성화
- 알막툼 공항은 단순한 공항 확장을 넘어, 두바이 경제의 구조적 다변화와 글로벌 허브 도시 전략의 핵심 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화물, 제조·물류, 자유무역지대 투자를 중심으로 장기적 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산업	효과
항공·물류	글로벌 항공화물 허브 → 운송비 절감, 서비스 효율화
제조·산업단지	Dubai Industrial City와 연계, 수출입용 제조 허브 형성
관광·호텔	공항 접근성 향상 → 관광객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
부동산	Dubai South 주변 주거·상업용 개발 촉진
첨단 산업	자유무역지대 내 R&D, 스타트업 유치 가능성 확대

출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라. 두바이 사례의 시사점

1) '공항 도시(Aerotropolis)' 비전의 확대 및 구체화

- 두바이의 알 막툼 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두바이 사우스(Dubai South)라는 거대한 복합 기능 신도시의 핵심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 알막툼 신공항은 연간 2억 6천만 명 수용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로 계획되어 장기적인 항공 수요를 완벽히 대비하고 있어 가덕도 신공항도 현재 단일 활주로 계획을 넘어 향후 수요까지 대비할 수 있는 초장기적인 확장 마스터플랜 수립
 - 알막툼 신공항 주변에 주거, 상업, 물류, 항공 도시 등 6개 구역을 통합 개발하여 100만 명 규모의 '도시 전체'를 건설하고 있어 가덕도 신공항 역시 공항 건설과 동시에 배후 도시(공항복합도시, 국제산업물류도시)를 단순 지원 시설이 아닌, 첨단 산업(반도체, 바이오) 및 주거, 상업 기능이 통합된 독립적인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2) Sea & Air 복합 물류 시스템의 완성

- 알막툼 신공항은 세계 10대 항구인 제벨알리항과 연계되어 Sea & Air 환적의 허브 기능을 극대화하고 있어 가덕도 신공항 역시 부산항 신항과 연계되는 이점을 가졌으므로, 이 시너지를 극대화
 - 두바이는 항만(제벨알리)-공항(DWC)-통합 관세 지역을 구축하여 물류 효율성 극대화하고 있어 부산신항과 연계한 복합 물류 회랑(Corridor) 및 통합 관세 지역을 설정하고, 공항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국내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하여 환적 경쟁력을 제고
 - 두바이가 글로벌 기업 물류 창고 유치 및 중동 최대 물류 허브로 성장하였 듯이 부산도 단순 화물 처리를 넘어, 고부가 가치의 신성장 산업(반도체, 신선물류, 전자상거래 허브)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본사 및 연구 시설을 배후단지에 유치

3) 글로벌 허브 경쟁을 위한 선제적 투자 및 속도

- 알막툼 신공항 확장은 글로벌 항공 허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투자로 가덕도 신공항 역시 주변 경쟁국 공항과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
 - 기존 두바이 공항 운영을 10년 내 완전히 알막툼 공항으로 이전하여 단일 메가 허브로 집중하였듯이 가덕도 신공항을 남부권의 유일한 24시간 장거리 국제선 중심 허브 공항으로 확실히 포지셔닝하고, 장기적으로 기존 김해국제공항의 기능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로드맵을 제시
 - 알막툼 신공항이 5개 평행 활주로, 첨단 자동 이동 시스템 등 항공 분야 최초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듯이 가덕도 신공항 역시 첨단 스마트 기술을 건설 및 운영에 전면 도입하여 미래 공항 경쟁력을 선점

2.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가. 케리로지스틱스(KLN) 방문

1) 회의 개요

- 일시: 2025. 10. 24(금) 15:00
- 장소: Room 5, 16/F, Kerry Cargo Centre, 55 Wing Kei Road, Kwai Chung, Hong Kong (葵涌永基路 55 號 嘉里貨運中心 16 樓)
- 참석자:
 - (국토연구원) 배유진 연구위원, 백윤지 부연구위원, 이수암 전문연구원
 - (케리로지스틱스) Jane Toktarova·Jisoo Jung Assistant Manager, Jiyeon Seo Manager
 - (홍콩번역가협회) 김지혜 통역 및 코디네이터



▲ 회의진행 사진



▲ 기관방문 기념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

2) 회의 내용

- 케리로지스틱스 기업소개 및 운영 방식
 - 케리로지스틱스(Kerry Logistics Network Limited, 이하 KLN)는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중국과 동남아를 포함한 59개국에 진출해 있음. 케리로지스틱스(KLN)는 단순한 운송 서비스를 넘어, 고객사가 제시한 서플라이체인 구상안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 및 운영체계를 구축함. 물류창고 운영, 소분 및 패키징 등 부가가치(Valued-Added, VA)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고객사의 물류 파트너로서 통합형 물류 솔루션을 지향함
 - 2021년 중국 최대 물류기업인 SF홀딩스(SF Holding Co., Ltd.)는 케리로지스틱스(KLN) 지분 51% 이상을 인수함에 따라 케리로지스틱스(KLN)는 모 기업인 말레이시아 콕 그룹(Kuok Group) 계열에서 SF홀딩스 산하 물류기업으로 전환됨. SF 홀딩스의 케리로지스틱

스(KLN) 인수는 기존 중국 중심에서 글로벌 공급망 기업(Global Supply Chain Group)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돋움으로 평가됨

- 케리로지스틱스(KLN) 세계 유수의 글로벌 리테일·소비재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옴. 고객사가 제시하는 공급망(Supply chain) 전략에 따라 최적화된 물류 설계 및 운영 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며, 실무 기반의 통합 운영체계 설계(System Integration, SI)를 통해 효율성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함. 특히, 고객사 운영 프로세스와 연계된 협업 구조를 형성하고, 창고 운영, 소분·패키징 등 부가가치(VA) 서비스를 포함한 통합 물류 솔루션을 제공

○ **홍콩-중국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홍콩 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

- 홍콩 국제공항은 중국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통해 10년 연속 세계 1위 항공화물 처리량 담당
- 홍콩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핵심 전진기지로서 지리적·제도적 장점 동시에 보유
- 홍콩의 국제적 항공 노선, 간소한 통관 절차, 중국의 저렴한 물류 저장·운송비용 간 시너지 효과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도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남중국권의 물류 허브 기능 또한 강화되고 있음
- 홍콩은 직접 제조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남부의 주요 생산기지 (둥관(Dongguan, 東莞) 선전(Shenzhen, 深圳) 등)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물류체계를 확보
- 특히, 홍콩에서의 높은 물류 저장비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전에서 제품 성격별 맞춤형 핵심 물류거점인 본디드 존(保稅區, Bonded Zone) 운영: 치엔하이 만(前海灣, Qianhai Bay) 옌티엔(鹽田, Yantian)
- 물류는 둥관 물류단지에서 집적 후 홍콩 세관의 통관 절차를 사전에 완료하여, 홍콩 도착 시 추가 세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국제 항공·해상 공급망으로 운송되는 시스템 활용하고 있음

○ **육·해상 운송수단의 복합적 활용**

- 육상 운송수단인 트럭은 날씨의 영향으로 인한 운송의 제약이 적으며, 변화하는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시간 민감도가 높은 상품(예: 신선식품, 당일 배송 제품 등)에 적합함
- 선전 내 핵심 물류거점(치엔하이 만, 옌티엔 등)에 중국의 생산 제품을 집적 후, 국경 간 트럭 운송(크로스보더 트러킹, Cross-border trucking) 방식을 통해 국경(세관)을 넘어 홍콩으로 직접 운송함. 그 다음, 홍콩 국제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연결성(Air connectivity)을 활용해 미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모델을 적극 활용 중
- (예시) 실제 홍콩-선전 간 육상 운송수단으로의 연계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선전의 디즈니랜드 물류창고에서 홍콩 디즈니랜드로의 탄력적인 물류 공급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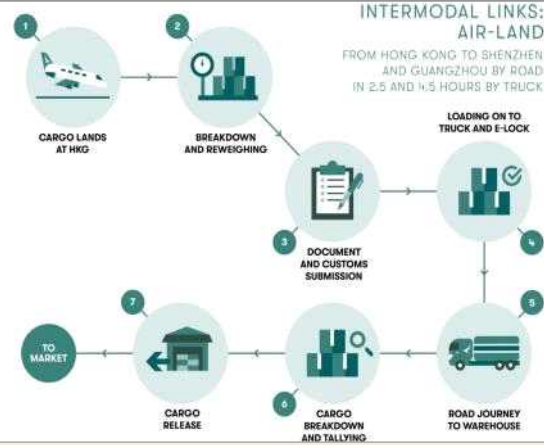
출처 <https://www.chinadaily.com.cn/a/202310/27/WS653b4d89a31090682a5eb1d0.html>

- 해상 운송수단인 페리는 태풍 등의 날씨의 영향으로 인한 운항의 제약이 크며, 탄력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음(등관물류단지-홍콩국제공항 페리 3회/일 운항).
- 반면, 대량·저가·고빈도 수출 구조의 이커머스 물류체계는 운송비 절감과 대규모 집하 효율성이 높은 페리 운송과 부합하며, 이를 통해 홍콩국제공항을 거치는 글로벌 이커머스 수출 경로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함
- ① **대량 물동량 집하 및 고정적 운송**: 이커머스 물류체계의 특징은 수많은 중소 판매자의 제품을 하나의 물류망으로 집약하여 대규모로 처리하는 것으로, 소규모 주문 물량을 한곳으로 모아 대량 단위로 운송하는 과정이 핵심이 됨. 대량 집하형 물류구조에서 육상·항공 운송수단(트럭, 비행기)에 비해 해상운송수단(페리)은 대규모 물량을 한번에 처리 가능하며, 일정한 주기로 안정적인 공급량을 유지 가능함
- 등관·선전 등 중국 남부의 제조 거점에서 생산한 이커머스 제품을 홍콩국제공항에서 집약·수출하는 과정에서 페리는 대규모 운송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임
- ② **운송비 절감효과**: 이커머스 시장은 낮은 상품 단가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물류비 절감이 전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함. 특히, 해상운송(페리)은 타 운송수단(트럭, 비행기)에 비해 저렴한 연료비, 인건비, 운항비(정비·보험·항만료 등)로 운송단가가 낮아, 중국-홍콩 이동 시 운송비 절감에 효과적임. 더불어, 해상-항공 복합운송(Sea-Air Logistics) 체계를 활용해 추가적인 전체 운송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음

- ③ **환적·세관절차 간소화**: 중국-홍콩 간 해상-항공 복합운송(Sea-Air Logistics) 체계를 활용한 절차의 간소화. 에어사이드 복합 화물 터미널(Airside Intermodal Cargo Pier)
- 홍콩 국제공항-동관 물류단지인 해공복합운송 환적 시설인 “에어사이드 복합 화물 터미널(Airside Intermodal Cargo Pier)”을 구축·운영 중. 화물 전용 해상 터미널로, 동관에서 보안 검사를 완료한 뒤, 페리로 홍콩 국제공항까지 운송한 화물을 추가 보안검사·통관절차 없이 항공기 또는 화물 터미널로 직접 환적하는 시스템
- 이 해공복합운송 모델은 기존 육상 운송 방식 대비 비용 50% 절감, 처리 시간 1/3 단축 효과가 있음¹⁾. 기존 육상 운송 시 거쳐야했던 국경 검문소, 공항에서 별도의 세관·보안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물류 운송시간 및 통관 비용을 절감. 홍콩 대표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Cathay Pacific)의 화물 터미널(Cargo Terminal)에 해당 모델을 최초 도입함²⁾



▲ 캐세이퍼시픽의 GBA 항공·육상연계 물류망 (Air-road intermodal cargo)



▲ 캐세이퍼시픽의 GBA 항공·육상연계 물류체계 흐름도

출처 <https://www.cathaycargo.com/en-us/solutions/greater-bay-area/air-road-intermodal-cargo-greater-bay-area-cathay-cargo.html>

○ **인접국가 간 물류 클러스터 연계전략 적용사례**

- 홍콩은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요 경제·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미·중 갈등 심화와 중국 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생산기지를 동남아시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로 이전하는 추세도 존재함
- ①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동남아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인력 및 물류 저장비용이 높다는 단점을 말레이시아 PTP(Port of Tanjung Pelepas) 지역에서의 비용절감으로 보완함
- 말레이시아PTP는 싱가포르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주요 동서 항로에 인접해 물류·환적 기능이 우수하고, 물류 처리 및 창고 임대료가 싱가포르보다 20~40% 낮음³⁾

1) <https://www.aircargonews.net/hkia-makes-strides-on-sea-air-intermodal-logistics-park/1065896.article>

2) <https://www.freightwaves.com/news/how-slow-ships-are-speeding-up-hong-kongs-air-cargo>

3) <https://content.ballastmarkets.com/ports/tanjung-pelepas/?utm>

- ② 베트남: 베트남은 제조기지로 본디드 존(Bonded Zone)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라벨 변경 및 부가가치 규제로 인해 기업의 자율성이 제한됨. 외국 물품의 저장, 단순가공, 포장, 라벨링 등은 가능하나, 제조, 즉 물품의 실질적 가치(Value)가 변동하는 수준의 가공활동은 제한적임. 이는 원산지 증명과 연계되어, 라벨링·포장만으로 원산지가 변경되거나 품질 인증이 바뀌지 않도록 규제함4)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PTP 해역 도로망



▲ KTMB MMC Cargo의 말레이시아 물류망

출처: <https://www.mmcports.com.my/port-of-tanjung-pelepas/>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4/09/28/cargo-rail-line-to-johor-port-halted#goog_rewarded

4) <https://news.nate.com/view/20250429n44930>,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2154600084>

나. 홍콩중문대학 항공정책 및 연구센터 방문

1) 회의 개요

- 일시: 2025. 10. 25(토) 10:00
- 장소: CUHK Business School Town Centre. Unit B, 1/F, Bank of America Tower, 12 Harcourt Road, Central, Hong Kong
- 참석자:
 - (국토연구원) 배유진 연구위원, 백윤지 부연구위원, 이수암 전문연구원
 - (홍콩중문대학) Andrew Chi-lok Yuen 항공정책연구센터 전무이사
 - (홍콩번역가협회) 김지혜 통역 및 코디네이터



▲ 회의진행 사진



▲ 기관방문 기념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

2) 회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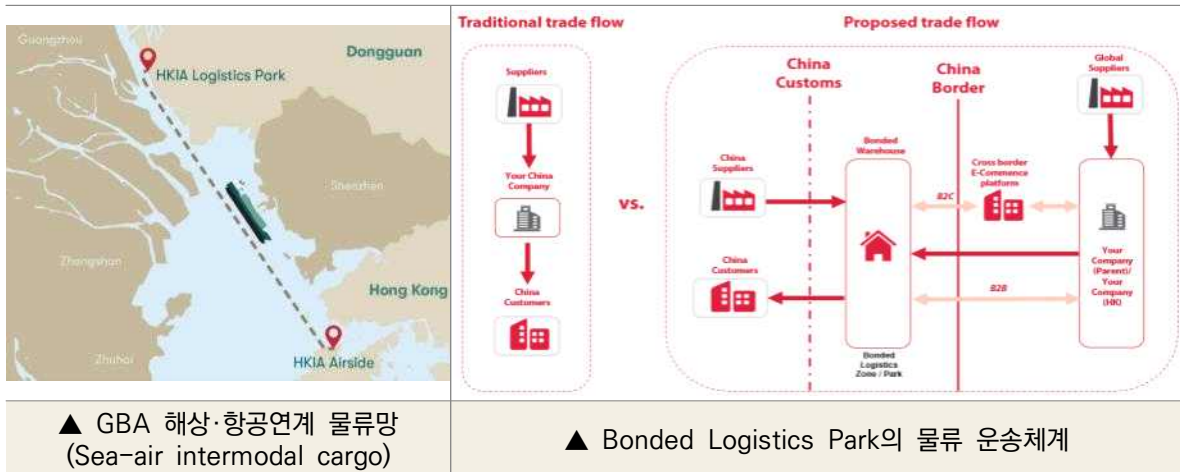
- **홍콩국제공항의 핵심 대응전략 요약**
 - 홍콩국제공항의 핵심 전략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됨.
 - ① **물류비용 절감 전략**: 동관 물류단지과 홍콩국제공항의 연계를 통해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함
 - ② **고부가가치 서비스 전략**: 비이민 접근시스템을 도입하여 입국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한 MICE·리테일·문화시설 등 프리미엄 여객 경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
 - ③ **규제혁신 및 상생협력 전략**: 광둥-홍콩-마카오 그레이터 베이 지역(Greater Bay Area, 이하 GBA) 내 주요 공항 및 관계 주체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 혁신과 상생 발전을 추진함
 - 이러한 핵심 전략은 홍콩공항공사의 지분 구조와 정부 정책 방향의 합치성, 그리고 항공산업 자본시장 개방성과의 시너지를 통해 실행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홍콩 주요 항공사는 자유화된 자본시장 환경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식 매매가 개방되어 있어 국제 자본 유입 잠재력이 높음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는 외국인의 주식 매매가 제한되어 있음)

또한, 홍콩공항공사가 정부 100% 소유 기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부의 새로운 공항 운영 정책인 쇼핑몰 및 MICE 시설과 같은 비(非)항공 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재정적 뒷받침이 됨

○ ① **물류비용 절감 전략: 동관 물류단지-홍콩 국제공항 연계 모델**

- 홍콩국제공항은 GBA 내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비용 환승 거점이라는 기존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통합 지역 경제 허브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략적 변곡점에 서 있음
- 동관 물류단지는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홍콩국제공항의 물류체계에 큰 전환점이 되었음. 동관 물류단지 등 인근 물류 허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항 물류 운영 절차를 최적화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함.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항공·물류 연계 경쟁력을 강화함
- 동관 물류단지-홍콩국제공항 연계의 핵심은 홍콩에서의 **절차 간소화와 해당 규제의 완화**임. 물류의 포장 작업이 완료되면, 1차적인 통관 세관 절차가 동관 물류단지에서 처리됨. 사전 통관절차를 마친 화물은 선박을 이용하여 홍콩국제공항으로 운반된 후, 홍콩에서 추가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항공편을 통해 국내외로 운송됨
- 중복적, 불필요한 절차의 간소화는 시간·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홍콩의 약점인 높은 운영 비용을 크게 완화시킴. 동관 물류단지는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아 페리(일 3회 운항) 대비 물류 운송의 자율성이 높음
- 단, 동관 물류단지에서 출발해 홍콩공항에 도착하는 항공물류 비중 및 세부 데이터는 비공개 상태이며, 향후 물류체계에 관한 정밀한 진단연구를 위한 데이터의 확보는 필수적임
- 동관 물류단지와 홍콩 국제공항을 연계한 모델은 **“업무·생산의 공간적 분리 전략(Spatial Decoupling through Outsourcing)”**을 통해 홍콩의 지리적 제약(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가용 토지 부족)과 높은 지가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GBA 및 중국 본토 지역에서는 공간 집약적 1단계 물류 처리 단계를 수행하고, 홍콩은 고부가가치 항공화물 처리, 효율적 규제의 적용에 집중함으로써 국제 물류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함



출처: <https://www.fiducia-china.com/bonded-warehouse-the-efficient-option-when-selling-to-china/>
<https://www.cathaycargo.com/en-us/stories/news-analysis/cathay-cargo-is-the-first-carrier-to-offer-seamless-sea-air-shipments-from-the-gba.html>

○ ② 고부가가치 서비스 전략: 공항 배후도시 개발 및 프리미엄 서비스 확대

- 1990년대에 시작된 대규모 로즈 가든 프로젝트(The Rose Garden Project)에는 통청 신도시 개발이 포함되었으며, 현재 통청은 홍콩국제공항의 배후 도시로서 기능하고 있음. 통청 신도시의 개발로 홍콩 본섬의 높은 인구밀도가 분산되었고, 통청 내 홍콩 현지인 거주 비율 또한 상승함
- 통청 신도시는 위치적으로는 중국 본토로부터의 길목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함. 지역 연결성 측면에서는 투문(Tuen Mun)-란타우 다리 연결 계획이 있음. 투문은 홍콩 현지인 밀도가 높고 중국 본토로부터의 길목 지역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이 지역과 홍콩의 란타우섬을 다리로 연결하여 홍콩공항까지의 이동 시간을 90분에서 25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목표임
- 홍콩국제공항은 공항을 단순한 환승·통과 공간이 아닌, 체류와 소비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목적지로 탈바꿈하고자 함. 이를 위해 배후도시를 고부가가치 MICE(회의·전시·행사) 및 대규모 쇼핑물 중심의 목적지로 개발함
- 방문객(내국인·외국인)은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항과 연계된 시설에서 쇼핑, 문화,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음. 아울러, 연예인·가수 공연이 가능한 시설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공항 경험에 결합함으로써, 단순한 항공 운송을 넘어 고객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을 계획 중임
- 공항 배후도시 활성화 전략 중 하나로 입국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한 공항·연계 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비(非)이민 접근 시스템(Non-Immigration Access System) 도입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현재 공항 배후도시의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낮은 편이며, 공항 접근 편의성(도로체계, 대중교통 등) 또한 낮은 실정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GBA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즉각적 유입 인구 확보 방안이 중요하게 부각됨.
- 홍콩과 중국 광둥성을 잇는 주하이 대교(Hong Kong-Zhuhai-Macao Bridge, 이하 HZMB)를 공항 배후도시에 건설 중인 K11 대형 쇼핑몰과 직접 연계하고, 외국인이 입국 절차 없이 쇼핑·문화·MICE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내년 시행 목표로 준비 중임
- 이를 통해 주하이 및 마카오 지역 방문객은 별도의 출입국 절차 없이 공항 내 서비스와 동일한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주하이 대교(HZMB)를 활용한 비(非)이민 접근 모델은 배후도시의 상업시설을 종착지로 전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고부가가치의 경험을 제공하고 홍콩 국제공항 및 배후도시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주하이 대교



▲ 주하이대교-홍콩국제공항 교통망

출처: https://www.newsgd.com/node_625567fabf/e912da378f.shtml

https://www.td.gov.hk/en/transport_in_hong_kong/land_based_cross_boundary_transport/access_to_hzmb_hong_kong_port/index.html

○ ③ 규제 혁신과 국제협력 강화 전략: GBA 공항 간 협력 및 기능 분담 전략

- 홍콩국제공항의 궁극적인 목표는 GBA 내 공항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음. 공항의 경쟁력을 단순 비용 경쟁을 통해서가 아닌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및 혁신적·유연한 규제 도입을 통해 강화하고자 함
- 공항별 기능별 차별화를 위해, 홍콩국제공항은 국제 노선 및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의 역할을, 선전공항은 국내 항공 및 물류 중심 기능을, 광저우공항은 국제 거점공항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추진함. 향후 물류단지의 개발 방향은 동관, 주하이 물류단지를 두 거점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임
- 이러한 기능 분담형 협력체계를 통해 GBA 전체의 항공·물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GBA 지역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세관 절차 간소화, 비(非)이민 접근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한편으로, GBA 공항 간 협력체계 구축이 선전 및 광저우 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홍콩 정부와 공항공사는 GBA 전역의 시장 규모와 잠재력 증가를 고려하여 협력관계 구축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즉, 홍콩국제공항은 국제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경쟁하기보다는, GBA와의 통합 및 협력관계 내에서 전략적 선택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출처: <https://www.chinadaily.com.cn/a/202007/17/WS5f11113ba31083481725a308.html>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264275118308916#0030>

다. 홍콩 사례의 시사점

1) 효율적 공항 운영을 위한 공간적 분리 및 물류 최적화

- 홍콩 국제공항의 복합운송 시스템을 통한 물류 효율의 극대화 및 비용·시간 절감효과
 - 홍콩 국제공항은 높은 지가와 제한된 공간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공간적 분리 전략(Spatial Decoupling through Outsourcing)을 적용함
 - 공항 내부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대신, 동관 물류단지를 별도로 개발하여 1차 통관 및 세관 절차를 수행하고, 이후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으로 홍콩 국제공항으로 물류를 운송하여 추가 절차 없이 항공편으로 수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에어사이드 복합 화물 터미널(Airside Intermodal Cargo Pier)을 구축하여, 동관 물류단지에서 보안검사를 완료한 화물을 공항에서 추가 절차 없이 항공기로 환적하는 해공복합운송 모델을 구현함(기존 육상 운송 대비 운송 비용 50% 절감, 처리 시간 1/3 단축 달성)
 - 공항 입지의 물리적·경제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인접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사전 통관 체계 및 복합운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2) 비항공 수익창출을 위한 공항 서비스의 프리미엄화

- 비(非)이민 접근 시스템과 배후도시 연계를 통해 공항을 체류와 소비가 가능한 복합거점으로 전환하고, 접근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
 - 홍콩 국제공항은 공항을 단순 환승 공간이 아닌 체류와 소비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목적지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주하이 대교(HZMB)를 공항 배후도시 내 K11 대형 쇼핑몰과 직접 연계하고, 외국인이 입국 절차 없이 쇼핑·문화·MICE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2026년) 제공 목표로 준비 중임
 - 공항이 항공 운송 기능을 넘어 상업·문화·관광·비즈니스 복합거점으로 발전할 때,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확보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가 가능함을 시사함

3) 광역경제권 내 공항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홍콩 국제공항은 GBA 내 공항 간 협력과 기능 분담을 통해 광역 항공·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과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자 함
 - 홍콩 국제공항은 GBA 내 공항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단독 경쟁을 넘어 GBA 전체 항공·물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공항별 기능 차별화를 통해, 홍콩 국제공항은 국제 노선 및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 선전공항은 국내 항공 및 물류 중심, 광저우공항은 국제 거점공항 기능을 각각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협력체계는 세관 절차 간소화, 비(非)이민 접근 시스템 확대 등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함
 - GBA 공항 간 협력은 각 공항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광역경제권 전체의 항공·물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옴. 또한, 공항별 고유 강점을 살리고 중복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함을 시사함
 - 홍콩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진기지로서 지리적·제도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항공 노선, 간소한 통관 절차, 중국의 저렴한 물류비용과 제조시설 간 시너지 효과가 공항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음